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참여브랜드 확대

- (경기)한우람 등 6개 브랜드경영체 추가선정 -

농림부는 2004.1월 도입, 실시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에 브랜드경영체 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남편 추가선정은 이력추적 가능 소 개체수를 확대하여 농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한 식육공급량을 확대하여 최근 학교급식 문제 등으로 야기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 및 안전성이 우수한 6개 브랜드는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한우람(한우람연합), 이천한우맛트림(이천축협), 양주곶한우(양주축협), 하이룩한우(하이룩한우연합사업단), 진설한우공동브랜드(남원·순정축협), 영주한우(영주축협) 이들 경영체에서는 오는 9월부터 전산등록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작수, 11월부터는 도축·가공능 유통단계 작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쇠고기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은 시범실시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전면시행에 효과적으로 대비코자 단계적으로 확대중에 있다.

2004년 10월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농시범사업은, 2006년에는 5개 브랜드 경영체와 3개 시(과주·김제·김해)를 추가하여 현재 17개 경영체·지역단위에서 실시중이며, 2006년 7월 말 기준 14만두의 소가 이력추적이 되고 있다.

이번 추가 참여를 계기로 2006년 하반기 중에는

23개 경영체·지역단위, 19만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한우 총 두수(약 80만두)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Beef Traceability)은 소의 생산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서 문제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능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눈감판에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수위 쇠고기 등 개방화의 위기로부터 한우산업을 보호하는 특정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